

# 면면한 선맥이 굽이친 대선사들의 생애 찬연히 빛나



## 23 선불교 중흥의 기상품은 청계사

청계사는 관악산과 더불어 서울의 남쪽 방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 아래 마을마다 새로운 길이 나고 새로운 휴양시설이 만들어지며 사람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산으로 들고 봉으로 오르는 길도 늘 산행인파로 붐빕니다. 청계(淸溪)는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휴식의 공간이고, 울창한 숲은 새로운 에너지를 길어 올리는 기운을 넣어 줍니다.

지친 사람의 육신에 힘을 넣어주고 마음에 희망을 채워주는 복지(福地)를 닦은 옛 절이 청계사입니다. 절은 옛 절이지만 항상 오늘을 살고 있는 중생에게 내일의 생기를 채워주는 도량(道場)에 무한한 시간 속에 한량없는 복전이 되고 있습니다.

청계사는 신라대에 창건된 절로 보이지만 기록을 남긴 것은 고려후기부터입니다. 1284년 평양부원군 조인규(趙仁規)가 막대한 사재를 들여 절을 중창한 이후 500년이 넘도록 그 가문은 청계사의 단원이 됐습니다. 목은 이색과 변계량 등 고려 말과 조선 초기를 풍미했던 문장가들도 청계사를 읊은 시를 남겼으니 서울의 남쪽 푸른 계곡의 서기(瑞氣)를 온 몸으로 흠모한 사람은 수없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묵객들의 가슴에 남은 '풍경'으로서의 청계사는 본질일 수 없습니다. 수행자에게 간단없는 절의 도량이 되고 시주단원들에게는 무량한 공덕의 밭이 되어야 일체중생의 귀의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계사의 본질을 꾸준히 이어온 수많은 결승들의 흔적은 시절인연이 혼탁해 상세하게 전하지 않지만, 도량 곳곳에 스민 향화의 흔적은 천년고찰의 이능함으로 다가옵니다.

10월 6일 청계사에서서는 매우 뜻 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허-만공-보월-금오-월산으로 이어 내려온 한국 선불교의 중심 법맥의 주인공들께 올리는 다례제가 열린 것입니다. 선대의 은사를 위한 다례제를 올리는 일도 거룩한데 이 날은 그간 모시지 못했던 보월 스님의 부도를 제막하는 날이어서 더욱 밝은 날이었습니다. 5대 선사의 부도와 탐비(檀比)가 5년의 불사를 마치고 완성됨으로써 청계사 부도밭은 어느 한쪽도 기울지 않는 선불장(蓮佛場)이 됐습니다. 부처를 뵈는 시현장이란 선방을 달리 부르는 이름인데, 청계사 부도밭이 선불장인 것은 바로 한국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선사로부터 내려오는 정정한 법맥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5대 선사들은 부처에 급제해 중생계에 우뚝한 영봉을 이뤘고 그 법향이 그윽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지만 부도밭을 참배하는 후학들에게는 더없이 고매한 가르침의 공간입니다.

"경허 선사로부터 주위의 밝음을 얻으니 만공 선사의 열고 밝음이 크신 지혜요, 그를 받아 금오 대선사로 전하니 뜻이 어디에 있을을 스스로 밝히셨습니



청계사 5대선사부도밭 전경(왼쪽)과 새로 조성한 보월 스님 부도를 설명하는 중상 스님(왼쪽). 그 옆으로 월탄·장주 스님.

## 부도마다 독특한 양식에 선사의 삶과 사상 표현

경허 만공 보월 금오 월산 5대선사 부도와 행적 담은 부도밭은 '선불장' 10월 6일 다례제 봉행, 오도송에 가락 엮어 공연도

다. 금오 선사께서 월산 선사에게 오른손을 들어 보이시되 한 순간에 답하시며 불조의 뜻이 그곳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분의 족적 외에 보월 스님의 무애무심이 있음으로 우리가 길을 얻어 나아감이요 혹은 길을 잃음에 다시 찾아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음입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의 다례제 법어는 바로 다섯 분의 선사들이 전해 온 서래밀지(西來密旨)의 밝고 큰 한 덩어리가 오늘날의 우리 가슴에서 쿵쿵거리고 있음을 알아 차리라는 직지(直指)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날 가을 햇살 아래서 청아한 음률에 엮여 노래한 5대 선사의 오도송은 산 빛 보다 찬란하고 하늘보다 높았습니다.

홀연히 쿳구멍 없다는 말을 듣고 문득 삼천대천세계가 나의 집인 줄 깨달았다. 유월의 연암산 아랫길에 들사람 일없이 태평가를 부르는구나. (경허선사 오도송)

덩그런 빈산은 이제 옛이 없는데

희 구름 바람만 오고 가는구나. 무슨 일로 말하는 서쪽 하늘을 넘었건고 꿰차는 닭 오시(五時)에 울고 태양은 인사(寅時)에 뜨는 것을. (만공선사 오도송)

벽담(碧潭)에 달 잠기지만 보월(보월)은 오감이 있던가. 학정(鶴頂)에 홍일점 설야(雪夜)에 화출(鶴出)터니 덩그런 허공에 금오(金烏) 비상하네 명호(鳴呼) 우차(吁嗟)여! 선사의 진역은 청룡인가 명월인가 덩 빈산 달 오르자 봄 냇가에 호조일성(好鳥一聲)을. (보월선사 오도송)

시방법계를 투철(透徹)하고 보니 없고 없다는 것 또한 없구나. 날날이 모두 다 그러하기에

근본을 찾아봐도 또한 없고 없을 뿐. (금오선사 오도송)

참 모습 깨닫고 보니 부처와 조사 어디에 있는가 몸속에 하늘과 땅 본래 감추어 있으니 몸을 뒤쳐 사자후를 하노라. 세우지 않고 버리지 않고 쉬지 않도다. (월산선사 오도송)

청계사 부도밭은 아늑한 오솔길이 다하고 절로 오르는 높다란 계단을 바라보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2단으로 조성된 부도밭의 아랫단은 행적비와 옛 비석이 놓여 있고 윗단에는 5대선사의 부도와 탐비가 한 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그다지 넓지는 않지만 매우 짜임새 있게 조성된 청계사 부도밭에 들어서면 누구나 감탄을 하게 됩니다. 5대선사의 부도는 각기 다른 모양으로 다듬어졌는데 그 뒤를 지키고 서있는 탐비의 모양은 통일시켰습니다. 선사마다 달리 보여 준 수행과 활달한 기상 그리고 허공 같은 가르침의 세계를 통해 담아 표현하려는 그 정성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또 하나 청계사 부도밭이 아름다운 이유는 부도와 탐비의 크기를 통일시킨 점입니다. 법은 형상이 없고 가르침에는 편차가 없으니 선대 은사들의 부도에 차별도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이미 부처에 급제해 무상정등증각의 소식을 중생계에 떨쳤으니 그 평등하고 자유로운 기풍이 그대로 부도에 반영된 것입니다.

맨 오른쪽에 모셔진 경허 선사의 부도는 석종입니다. 메달라가던 선의 토양에 커다란 울림으로 선맥을 되살린 경허 선사의 생애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법장 스님이 찬했습니.

다음에 서 있는 만공 스님의 부도는 허공에 덩그런 일원상을 띄워둔 형상입니다.

'맑은 오시에 울고 해는 인시에 뜨는' 그 진리를 그렇게 표현한 듯합니다. 용주사 주지를 지낸 정락 스님이 찬한 비명이 선사의 한 생애를 상세히 안내하는데 천천히 읽어보면 한 수행자의 생애는 '한 생애'가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가운데 새로 모셔진 보월 선사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을 계승했고 불국사승가 대학장 막민 스님이 그 행적을 기록하고 덕화를 찬탄해 비에 새겼습니다. 그 옆에는 금오 선사의 부도가 서 있는데, 석종형을 계승해 보주 부분을 강조한 독특한 모양새입니다. 비명은 범주사 회주 제정 스님이 지었습니다. 맨 왼쪽의 월산 스님 부도는 기존의 부도 형식을 다분히 탈피해 새로운 조형미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둥근 원을 안으로 깔고 그 속에 석종을 넣었습니다. 불국사문화관광장 중상 스님이 찬한 비문의 내용은 월산 선사의 삶과 정신을 응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계사 부도밭에서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부도의 조형을 감상해야 하고 그 부도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사들의 생애를 적은 탐비를 읽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눈이 아파도 정성을 들이는 만큼 쿳구멍없는 소를 만날 수 있고 꿰치는 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계사 부도밭은 근현대 한국불교 선맥의 정수리입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스님!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단돈 70만원에 법당의 오래된 앰프 마이크 소리를 “확” 바꿔드립니다!!

소장 : 김문희(海月) 직점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15th

[앰프 + 마이크, 스피커 + 마이크 등의 교체 및 재 셋팅]

예약접수기간 : 2009년 6월 ~ 8월 31일까지 (예약순으로 일주일에 병당 2곳만 설치해 드립니다)

해당 지역 :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일부 지역

◆ 소리공양 증록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질,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탠드 마이크

-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스피커

일반 마이크 V-606LC

-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고성능 탁상 마이크

- ◇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희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야 얻을 수 있는 바(利益)가 있다
- 함축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